

#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2000년된 수레 선보인다

**일산 지역희망박람회 오늘 개막**  
**광주시 친환경차 선도도시 알리기**  
**풍류남도나들이 등 다양한 홍보**

광주시에 고대 수레바퀴를 이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알리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6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광주를 적극 홍보한다.  
광주시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000년

전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출토된 마차용 수레바퀴 복원품을 대여해 전시하고, 역사적으로 광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의 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수소융합스테이션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활용해 2000년 전 수레바퀴와 친환경자동차 바퀴를 돌리고, 지진과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에서는 가정용 전기로 사용되는 모드를 시연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대카드가 지원한 1913송정역시장을 VR체험해보는 코너와 1913송정역시장 중 '강소년' 상점을 재현한 과일양갱을 맛보는 시식 코너도 마련한다.

또한 2016년 지역위원회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풍류남도나들이' 공연 모습을 보여주고, 광주호 생태원과 무등산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문화예술도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융합스테이션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은 광주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된다"며 "지역희망박람회에서도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 광주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희망박람회는 '활력있는 지

역경제, 행복한 주민'이라는 주제로 2013년부터 열리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 14개 부처·청이 주최하며 각 시·도와 정부 부처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개막식은 28일 오전 10시30분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일반인은 28일 오후 1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기간에는 일자리박람회, 지역나눔마켓,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견학프로그램, 컨퍼런스, 우수사례발표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아빠랑 1박2일 캠프' 온가족이 행복해요

**내달 14일까지 20가족 모집**  
**요리·미술 체험 소통 한마당**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이틀간 광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아빠와 자녀 20가족을 대상으로 '1박2일 아빠랑 캠프'를 운영한다.  
'엄마는 힐링, 아빠는 스마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1박2일 아빠랑 캠프'는 바쁜 직장생활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아빠에게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빠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캠프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도미노 체험·케이크 만들기', '미술로 심리 알아보기', '아내가 아픈 이유 강

의', '효도쿠폰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14일까지이며, 2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woman.gwangju.g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rdfmeq@korea.kr) 또는 팩스(062-613-7969)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  
김진수 본부장은 "이번 아빠캠프를 통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빠들이 가사와 육아에 전담해온 아내들을 이해하고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

**'물순환도시 만들기' 선정**

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가 대통령상인 대상에 선정됐다.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는 민·관·학이 이뤄낸 거버넌스의 좋은 예로, 광주는 지난 5년간 습지생물다양성 및 물순환도시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해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왔다.  
또한 마을만들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빗물을 활용하는 텃밭조성, 학교의 빗물정원 등 다양한 사례를 삶의 현장과

접목해 빗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6월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6년 물순환 선도도시'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경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물순환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이었고, 여기에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 만큼 광주가 물순환도시로 방향을 잡아가길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을 수 있게 거버넌스의 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통떡 만들어 먹어요"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27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떡을 비롯한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어린이 전통 식생활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 조선대병원, 몽골서 선진 의료 전파

광주시에 몽골에서 주최한 의료관광 비즈니스 행사에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의 마케팅 활동이 빛을 발했다.  
조선대병원은 광주시 방문단의 일원으로 최근 5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수술 시연 및 최신 수술법 강의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의료 기술을 전파했다.  
소금영 부원장과 김경종 대외협력실장·최지은 대외협력팀장 등 총 5명의 조선대병원 방문단은 몽골 정부 관계자 및 협력병원들을 방문해 그동안 다져온 관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고 돌아왔다.  
먼저 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광주시

와 함께 몽골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찾아 협력병원 현판 제막식과 외과질환 수술환자 인터뷰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 라이브 수술 시연(김경종 외과 교수)을 했다. 또한 몽골 국립의대 학생과 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장암의 최신수술법 중 전직장간막 절제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몽골 국립 제1병원, 국립모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7곳 병원을 추가로 방문해 현판전달식, 병원투어,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미팅을 진행했으며, 국립모자병원에서는 사비교정술 라이브 수술 2건의 시연(최지은 이비인

후과 교수)을 통해 한국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했다.  
소금영 부원장은 "광주시에 함께 몽골과의 우호적인 의료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몽골 국립의과대학의 전공의 연수병원으로 2015년부터 6차례 걸쳐 15명에게 연수를 통해 선진 의료기술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올 연말에는 7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6년 '한·몽 서울 프로젝트'와 '한·러 연수프로젝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해외의료진 연수프로그램을 이달 30일부터 8주간 진행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무대 옛터 표지석**  
**시청 광장으로 이설**  
상무대 옛터 사적지 표지석이 28일 광주 시청 광장(5·18 당시 포병학교 건물)으로 옮겨진다.  
옛 상무대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은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돼 교통사고 발생 시 훼손될 수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시는 올해 6월 5·18기념사업위원회에 상정해 시청 광장으로 이설을 결정했다. 옛 상무대는 1998년1월12일 사적지 17호로 지정됐으며, 상무대 옛터 표지석은 옛 상무대 입구(5·18 당시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올해 3월 설치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영산강 오솔길 따라 역사여행 떠나요



영산강 길을 따라 피어난 역사와 코스모스 꽃을 배경으로 10월 한 달간 '2016 영산강 서창 들녘 역사축제'(이하 '역사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시와 서구는 이 기간을 역사생태문화제 주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극락교~서창교 3.5km에 달하는 영산강변 코스모스와 역사 길에서 역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1일 개막행사로 시작하는 역사축제는 서구의 18개 동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허수아비 오솔길을 비롯, 각종 동

호회, 예술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을 맞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역새발 오솔길 걷기 ▲투바퀴로 떠나는 역사여행 ▲병아리 예술제 ▲역새 스톨웨딩 ▲역새 나조 사진촬영대회 ▲역새, 코스모스 포토존 ▲전국 버스킹 대회(예선, 결선) ▲역새 피크닉 등과 함께 자연과 힐링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 기간 광주에서 열리는 ▲7080총장 축제(9.29.~10.3.) ▲광주비엔날레(9.2.~11.6.) 등 각종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역사생태문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셔틀버스 노선은 송정역 → 극락교(행사장) → 터미널 → 비엔날레 → 문화전당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사정상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